

교토국립박물관 국제심포지엄

# 아시아의 박물관 교육은 지금

-한국, 싱가포르, 일본의 국립 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2023년 2월 4일(토) 13:00-17:00**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개최

교토국립박물관 헤이세이 지신관 강당  
온라인 Zoom Webinar

동시통역(일본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주최: 교토국립박물관

## 개요

일본에서 박물관 교육은 이 분야에서 앞서 있는 유럽과 미국의 이념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들 선진 교육 사례의 동향은 늘 관심의 대상이었고 빈번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지역 대학에서 박물관 교육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이 일본 각지에서 교육 보급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다른 박물관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들의 범위는 담당자들 간의 교류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싱가포르, 일본의 국립 박물관 담당자들이 모여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앞으로의 박물관 교육이 나아가 할 방향을 모색합니다.



©교토국립박물관

# 프로그램

- 13:00-13:05** 개회사  
마쓰모토 노부유키 | 교토국립박물관 관장
- 13:05-13:45** *박물관과 사람을 잇다-문화재 소믈리에와 교토국립박물관 내비게이터*  
미즈타니 아키 | 교토국립박물관
- 13:45-14:25** *과거와 놀기-한국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조혜진 | 한국 국립청주박물관
- 14:25-14:35** 휴식
- 14:35-15:15** *이어짐을 창조하다-관람객을 사로잡는 싱가포르국립박물관*  
후 밍리 | 싱가포르국립박물관
- 15:15-15:55** *다민족공생을 향한 박물관 교육의 시도와 '탐구전시 템파템파'*  
사사키 가즈요시 | 국립아이누민족박물관
- 15:55-16:05** 휴식
- 16:05-16:50** 토론
- 16:50-17:00** 폐회사  
구리하라 유지 | 교토국립박물관 부관장



## 박물관과 사람을 잇다 -문화재 소물리에와 교토국립박물관 내비게이터

미즈타니 아키(水谷 亜希)  
교토국립박물관



교토국립박물관은 메이지 30년(1897), 교토시 히가시야마 지역에 설립되었습니다. 주로 고대부터 에도시대(1615-1868)에 걸친 교토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를 소장하고, 그것을 지키고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장품은 15,000점에 달하며, 이중 절반 정도는 신사나 절 등으로부터 기탁받은 작품입니다.

교토국립박물관에서 선구적인 위치를 갖는 교육 활동은 연구자들이 진행하는 전문 강좌입니다. 이 강좌는 다이쇼 13년(1924)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폭넓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은 헤이세이 24년(2012)에 교육실이 설치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현재 교육실은 실장(작품 담당 겸임) 1명, 연구원(교육 담당) 1명, 사무보조원 2명, 총 4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좌, 워크숍, 핸드온 교재 개발 및 실천, 방문 수업, 자원봉사자 육성과 운영, 학교 단체 대응, 셀프 가이드와 워크시트 작성, 입문적 성격의 특집전시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토국립박물관의 교육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재 소물리에’와 ‘교토국립박물관 내비게이터’ (약칭 ‘교박 내비게이터’)의 활동입니다. ‘문화재 소물리에’는 교토시립 초·중학교에서 방문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약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토국립박물관 내비게이터’는 약 200명으로, 박물관 내에서 핸드온 코너와 워크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 두 가지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박물관과 사람을 잇는 존재인 이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무엇을 이루어 왔는지를 소개합니다. 또한 이들 활동의 토대가 된 선행 사례와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최근 일본의 박물관 교육의 한 단면을 소개합니다. 아울러 현재의 과제를 공유함으로써 앞으로의 박물관 교육의 모습을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교토국립박물관

©교토국립박물관



## 미즈타니 아키(水谷 亜希)

교토국립박물관 교육실 주임연구원. 도시샤대학 대학원 예술학 석사. 세키시립시노다도코미술공간, 기후현미술관을 거쳐 2009년부터 교토국립박물관에서 교육 담당으로 근무. 입문적 성격의 특집전시 기획, 자원봉사자 육성 및 운영, 워크숍 기획, 학교 교육과의 연계, 셀프 가이드 작성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담당. 문화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문화재에 재미있게 다가갈 방법을 고찰·실천하고 있다.



©교토국립박물관

## 과거와 놀기: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조혜진**  
한국 국립청주박물관

어린이들은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고 도전하는데 흥미를 느끼고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 스스로를 테스트하고 측정해보는데 늘 준비가 되어 있다.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거나 레고 조각을 맞추는 것 등에 흥미를 느낀다. 인간의 역사는 발견, 발명, 예술적 성과, 실험, 개혁의 이야기이다. 이는 어린이의 특성과 유사하다. 과거는 어린이들에게 낯선 세계이다. 그래서 역사전시는 어린이들에게 탐험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주변을 찰러보는 행동은 어린이들에게 본능적이다. 낯선 공간으로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오감을 마음껏 사용해서 새로운 세상을 마음껏 찰러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어린이 역사전시의 의미와 가치라고 본다.

그런데 어린이 전시에는 박물관의 소장품(진품)이 전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어린이박물관은 하나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작품 없는 미술관, 유물 없는 박물관이 가능한가? 작가의 페인팅 붓, 이젤, 작업에 사용했던 과일 등의 오브제, 풍경을 찍은 사진, 작업실을 재현한 공간, 작가의 인터뷰가 담긴 영상 등의 전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작가의 작업하는 모습을 상상해보고, 작품을 머리 속에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작가를 둘러싼 여러 요소들을 전시함으로써 그 작가의 작품을 소개할 수도 있다. 몇 년 전 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한 <이타미 준: 바람의 조형> 전시를 보면 건축가의 작품인 건축물이 아닌 작가의 드로잉, 도면, 모형, 인터뷰 영상 등을 통해서 그 건축가의 작품을 감상했다. 건축가의 작품세계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훌륭한 전시였다.



역사박물관은 어떠한가? 유물 없는 전시가 가능한가? 역사는 삶이다.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역사이다. 역사는 사람들의 경험으로 이루어진다. 삶은 유물로만 설명될 수 없다. 박물관은 인류의 발자취,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유물 없는 역사전시도 가능하지 않을까?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것이 전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역사전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국립중앙박물관 및 13개 국립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들은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공간을 탐험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공간이다. 갈돌 갈판에 곡식을 얼마나 갈아야 껌질이 벗겨질까? 그림 속에 사람들은 실제 인물일까? 조선시대 사람들도 여행을 갔을까? 등 우리의 일상과 연관 지어 역사를 보여준다.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양한 기법의 전시연출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단면들을 보다 생생하게, 흥미롭게 전달하고자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역사와 전시를 소개하면서 어린이박물관의 가치와 의의가 무엇인지 말하고자 한다.

## 조혜진



한국 국립청주박물관 교육 담당 학예연구사. 2022년 12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 학예연구사로 재직했다. 서울 한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런던 레스터 대학교 박물관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박물관 이용자와 교육 프로그램이 전시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에서 어린이전시를 담당하며 어린이박물관의 교육적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후 교육과로 자리를 옮겨 '박물관 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장애인 교육 공간 조성에 힘썼다.

조혜진 이메일:  
hjchocho@korea.kr

## 이어짐을 창조하다 -관람객을 사로잡는 싱가포르국립박물관

후 밍리(胡 敏莉, FOO Min Li)  
싱가포르국립박물관



싱가포르국립박물관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입니다. 싱가포르의 역사와 유산, 문화 등 싱가포르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국립 박물관으로서, 본 박물관은 방문자와 이야기, 소장품, 그리고 박물관 사이를 잇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박물관에서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 이어짐을 창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국립박물관

지난 6년간, 싱가포르국립박물관은 다음과 같은 물음 아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치매 고령자를 포함한 고령자, 그리고 폭넓은 범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시도를 해 왔습니다.

### 가족

가족 단위 방문자들은 여가 활동, 혹은 싱가포르에 대해 알기 위해 박물관을 방문한다. 박물관이 이러한 가족 단위의 방문자(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포함)를 환영하고, 그리하여 더 많은 가족에게 함께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고령자

박물관의 전시품이나 이야기들은 고령자들이 뜻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어떻게 하면 박물관이 치매 고령자를 포함한 고령자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 그들에게 박물관이 부담 없이 방문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한 공간, 나아가 그들의 가족, 친구들과 싱가포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도가 필요할까?

## 학생

학생들에게도 싱가포르의 역사와 유산에 대해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각자 취향이 다른 학생들을 어떤 방법과 기회로 연결할 수 있을까?

이번 발표에서는 싱가포르국립박물관의 이러한 시도와 영감, 접근 방법, 배울 점 등을 공유하고, 향후 박물관 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싱가포르국립박물관

## 후 민리(胡敏莉, FOO Min Li)

싱가포르국립박물관(NMS) 부관장. 학교, 가족, 일반 대중,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팀의 리더이다. NMS에 합류하기 전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싱가포르 국립문화유산위원회(National Heritage Board) 유적 및 기념물 보존 부문(Preservation of Sites and Monuments Division)에서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며 싱가포르 국가 지정 기념물의 역사를 연구, 그 성과를 학교와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해 왔다. 이후 NMS에서 싱가포르 헤리티지 페스티벌(Singapore Heritage Festival)이나 국경일 축하 행사 프로그램을 조율해 왔다. 현재는 교육 담당 동료와 협력해 학생들의 박물관 학습 체험 강화와 고령자의 박물관 참가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 등을 진행 중이다.



## 다민족공생을 향한 박물관 교육의 시도와 '탐구전시 템파템파'



사사키 가즈요시(笹木一義)

국립아이누민족박물관

An=ukokor aynu ikor oma kenru, 국립아이누민족박물관은 선주민족 아이누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일본 국내 최초의 국립 박물관입니다. 민족공생상징공간(애칭: 우포포이)의 중핵 시설 중 하나로 문화청이 설치한 본 박물관은 2020년 7월, 홋카이도 시라오이 지역의 포로토코 호반에 개관했습니다. 시라오이는 삿포로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본 박물관의 전신이자 2018년까지 '포로토 코탄'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아이누민족박물관이 53년간 아이누 문화 전승 활동을 이어온 곳이기도 합니다. 국립아이누민족박물관에서는 이 민간 박물관에서 소장하던 자료를 포함해 약 1만 점의 아이누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선주민족인 아이누의 존엄을 존중하고 일본 국내외에 아이누의 역사와 문화 등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촉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아이누 문화의 창조 및 발전에 기여한다' 라는 이념 하에 연구학예부(4개 실)와 전문 그룹(5분야 1기능)을 중심으로 전시와 조사 연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강좌, 워크숍, 갤러리 투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전시실에는 연구학예부원 1명을 배치해 관람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체재도 갖추고 있습니다.



©국립아이누민족박물관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 국내에서의 아이누 민족, 아이누 문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국립아이누민족박물관 및 우포포이 방문자들이 다민족공생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시도해 온 활동을 박물관 내 교육 사업과 전시실에서의 대화 등을 토대로 소개합니다. 또한, 본 박물관의 기본전시실 내에는 박물관 교육에 주안을 둔 ‘탐구전시 템파템파’ 라는 전시가 있습니다. 이 전시는 기본 전시실의 테마 및 자료와 연계해서 설계된 체험 전시로 18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탐구전시’ 와 이를 이용한 교육 활동의 시도들도 아울러 소개합니다.

## 사사키 가즈요시(笹木一義)

국립아이누민족박물관 연구학예부 연구주사. 센다이미디어테크(센다이시), 일본과학미래관(도쿄) 등에서 상설전시, 기획전, 워크숍, 교육 보급 활동, 관람자와 함께하는 실증 실험 등을 담당. 2017년 11월, 국립아이누민족박물관 설립준비실에 부임해 2020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체험 전시 코너 ‘탐구전시 템파템파’ 개발, 교육 보급, 특별전시, 라이브러리 정비 등에 종사. 개관 후에는 주로 교육 보급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전공은 박물관학(박물관 방문자 연구).



©국립아이누민족박물관



©국립아이누민족박물관



©국립아이누민족박물관



©교토국립박물관

## 문의

교토국립박물관 학예부 조사·국제연계실  
527 Chaya-cho, Higashiyama-ku Kyoto 606-8416  
research\_kyohaku@nich.go.jp  
+81(0)75-531-7518

자세한 내용은 교토국립박물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www.kyohaku.go.jp](http://www.kyohaku.go.jp)

주최: 교토국립박물관